

# 효명세자의 「상림십경」 시에 대한 고찰

---

안이슬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 한문학 전공

ais1219@naver.com

---

I. 머리말

II. ‘상림십경’의 설정과 시문 창작

III. 국왕 문학 전통의 수용: 효명세자의 「상림십경」

IV. 효명세자 「상림십경」의 표현상 특징

V. 맺음말

---

## I. 머리말

---

조선의 역대 임금 27명 가운데 정비 소생의 적장자가 왕위를 이어받아 혈통의 정통성에 대한 이견이 없는 임금은 생각보다 그리 많지 않으며,<sup>1</sup> 이는 왕위에 오르지 못하고 사망한 왕세자의 경우도 비슷하다.<sup>2</sup> 조선의 제23대 임금 순조(純祖, 재위 1800~1834)의 맏아들 효명세자(孝明世子, 1809~1830)<sup>3</sup>는 숙종(肅宗, 재위 1674~1720) 이후 중전이 낳은 임금의 적장자라는 정통성을 바탕으로 임금과 왕실의 권위를 높이고자 노력했던 인물이다.

그는 1827년 3월 6일부터 아버지 순조를 대신해 국정을 운영하며 조정의 여러 현안을 처리했다. 그는 이 시기에 현재 창덕궁과 창경궁 권역을 아우르는 궐의 모습을 상세하게 묘사한 『동궐도(東闕圖)』 제작을 주도했으며, 궁중의 의례 및 연향을 직접 주관하면서 치사(致詞)와 악장(樂章)을 지어 올리고, 정재(呈才)를 창작하는 등<sup>4</sup>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문화적 장치들을 활용하고, 왕세자를 위한 수준 높은 교육을 바탕으로 축적한 문화적 소양을 활용하여 자신의 자질을 증명해 보였다.

400여 제에 달하는 효명세자의 시문은 그의 문집 『경헌집(敬軒集)』에서 확인할 수 있다.<sup>5</sup> 또 『경헌집』에 수록된 대부분의 작품이 효명세자의 저술로 전

- 
- 1 27명 중 문종·단종·연산군·인종·현종·숙종·순조 7명만이 적장자 출신으로 왕세자를 거쳐 왕이 되었다 심재우·임민혁·이순구·한형주·박용만·이왕무·신명호,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파주: 돌베개, 2013), 19쪽.
  - 2 정비 소생의 맏아들이 세자로 책봉된 경우는 세조의 아들 의경세자, 명종의 아들 순회세자, 선조의 아들 영창대군, 인조의 아들 소현세자,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가 있다.
  - 3 효명세자는 1809년 9월 18일 창덕궁 대조전에서 태어나 1830년 6월 25일 창덕궁 희정당에서 사망했으며, 헌종(재위 1834~1849) 즉위 이후 익종으로 추존되었다.
  - 4 효명세자가 주도한 왕실의례 및 궁중 연향의 의미와 관련하여 박나연, 「純祖代 孝明世子 관련 王室儀禮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21)을 참고할 수 있다.
  - 5 이종묵,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10(2002), 316쪽, 320~322쪽.

하는 『담여헌시집(淡如軒詩集)』(장서각 소장기호 K4-431), 『학석집(鶴石集)』(장서각 소장기호 K4-5695) 등의 문헌과 추존왕 중 유일하게 편찬된 『익종어제(翼宗御製)』<sup>6</sup>에도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문헌 자료를 바탕으로 효명세자가 창작한 정재나 악장에 주목하거나, 그가 주관한 왕실 연회나 각종 의례 절차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 기존의 논의들이 많이 있지만, 그가 지은 시문을 통해 그의 문학적 성취 등을 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sup>7</sup> 효명세자의 문화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그가 창작한 문학 작품에 대한 논의들이 더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양의 여러 궁 가운데 창덕궁은 임진왜란 이후 조선 왕실의 실질적인 법궁 역할을 했던 만큼, 창덕궁과 관련한 시문 역시 많이 창작되었다. 헌종(憲宗) 연간에 편찬된 『궁궐지(宮闕志)』에는 창덕궁의 각 공간에 대한 간략한 역사와 함께 해당 공간과 관련된 역대 임금의 및 당대 문사들의 시문이 제시되어 있다.<sup>8</sup>

『궁궐지』 중 한 책인 『창덕궁지(昌德宮志)』에 익종(효명세자)의 작품으로 명시된 것은 5편뿐이며,<sup>9</sup> 3편은 효명세자가 자신의 독서처로 쓰기 위해 지은 의두합(倚斗閣)과 관련된 것<sup>10</sup>이다. 그런데 효명세자의 문집에는 『창덕궁지』

6 김남기는 익종으로 추존된 효명세자의 작품들이 『열성어제』로 편찬되는 과정을 논하고, 수록된 시문의 현황을 개관한 바 있다. 김남기, 「국왕의 시문과 생활: 『列聖御製』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8(2008), 8~17쪽.

7 이종목은 효명세자의 문집과 저술 현황을 정리하고, 궁중에서 이루어진 그의 문학 활동을 세 갈래로 나누어 각각의 미적 특징을 개괄했으며, 효명세자를 ‘역대 국왕 중 문학적 성취가 가장 높았던’ 인물로 평가했다. 이종목, 앞의 논문(2002), 315~345쪽.

8 박순, 「『창덕궁지』를 통해 본 창덕궁 관련 한문학 유산 연구: 어제 시문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0(2023), 60~65쪽.

9 나머지 둘은 각각 「凌虛亭卽事」와 「觀物軒四詠」으로, 모두 『경헌집』 권1에 수록되어 있다.

10 『경헌집』 권5에 수록된 「倚斗閣十景」은 『담여헌시집』 권1, 권3에도 수록되어 있다. 「의두합상량문」은 『경헌집』 권7에 「石渠書室上樑文」이라는 제목으로, 「가을 산재에서 빗소리 들으며 느낌을 읊은 한 구절[秋日山齋聽雨感賦一絕]」은 『경헌집』 권5와 『담여헌시집』 권3에 수록되어 있다.

에 수록된 다른 임금들의 작품 못지않게 창덕궁 후원 및 전각과 연관된 작품이 적지 않다.<sup>11</sup> 특히 『경헌집』에는 상림(上林), 곧 창덕궁 후원에서 볼 수 있는 열 가지 풍경을 꼽아 시로 읊은 「상림십경(上林十景)」이 세 편이나 남아 있는데, 『창덕궁지』에는 이 작품 중 단 한 수도 수록되지 않았다.

「상림십경」시는 숙종 대부터 시작된 창덕궁 후원의 누정 경영을 통한 신하들과의 교유 정치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작품으로, 선대 임금의 치정(治政) 및 문예적 관심의 계승이라는 두 측면에서 모두 논의할 만한 부분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동일한 제목을 가진 선대 임금의 작품의 특징과 비교하는 과정을 통해 효명세자가 창작한 「상림십경」시의 문학적 특징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간 다소 미진했던 효명세자 개인의 문학세계에 대한 논의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sup>12</sup> 이러한 시도가 왕실 구성원들이 선대 임금의 문학 창작 전통을 계승해 나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왕실 문학의 연구 범위 확장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sup>13</sup>

- 
- 11 『경헌집』에 수록된 관련 시문의 제목을 대략 제시하면, 「芙蓉亭四景」·「敬次先朝愛蓮亭韻」·「上林觀雪吟」·「內苑柳鶯」·「凌虛雪霽」·「清心翫月」·「天香看花」·「太液池」 등이 있다.
  - 12 『숙종 열성어제』 및 『홍재전서』는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https://db.itkc.or.kr>)에서 제공하는 번역을 참고했으며, 『창덕궁지』는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편, 『궁궐지 I: 경복궁·창덕궁』(서울: 서울학연구소, 1994)의 번역을 참고했다. 본문에 인용하는 경우 문맥에 따라 수정했다. 이하 동일.
  - 13 안장리는 거시적 관점에서 조선의 임금의 팔경 문학 향유 양상을 고찰하면서 숙종과 정조(재위 1776~1800), 순조의 「상림십경」을 분석 대상을 제시했으나, 효명세자의 작품을 다루지 못한 것을 한계로 밝힌 바 있다[안장리, 「조선시대 왕의 八景 향유 양상」, 『동양학』 42(2007), 1~23쪽]. 그러므로 이 논문의 시도는 해당 논의의 후속 연구로서의 성격도 가질 수 있을 것이라 본다.

## II. ‘상림십경’의 설정과 시문 창작

팔경시의 창작은 조선 문인들의 문학 활동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다.<sup>14</sup> 조선 한문학의 창작 주체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대부 문인들을 비롯하여 유교 국가에서 절대적 권위를 갖는 대상인 임금 역시 동일한 창작 방식을 향유했다. 다만, 임금은 생의 대부분을 구중궁궐에서 보내게 되는 바, 이들이 창작한 팔경시 역시 궁궐 내 공간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 궁궐이라는 공간은 아무리 가문의 위상이 높은 사람이라 해도 임금의 허락 없이는 함부로 엇볼 수 없는 금기의 공간이자 비밀스러운 공간이다. 따라서 궁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풍광을 대상으로 한 작품들은 그곳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임금이 가장 섬세하게 형상화할 수 있다.<sup>15</sup>

조선 왕들은 왕실의 정원에서 탈속의 흥취가 있는 승경을 찾고 성현을 경모하는 자세를 보이며, 동시에 성조(聖祖)를 사모하고 이들의 가호에 힘입어 인재를 운용하여 백성을 풍요롭게 하는 이상 정치에 대한 추구를 보여주었다.<sup>16</sup> 특히 숙종은 창덕궁 내의 전각들을 중수하거나 기존 전각의 이름을 새로 지어 붙이면서 이곳을 선대왕의 적장자이자 중전 소생이라는 강력한 정통성을 바탕으로 확보한 정치적 힘의 기반이자, 신하들이 함부로 침범할 수 없는 임금의 공간으로서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 가운데 그는 현재 창

14 안장리는 고려부터 조선 후기에 걸쳐 이루어진 팔경시의 발전 양상을 형성기, 발전기, 집성기, 전환기, 확대기 순으로 대별한 바 있다. 위의 논문, 2~3쪽.

15 백승호는 정조의 예를 들어 역대 왕들의 작품이 중첩되면서 후대 왕의 문학 창작에 근거로 활용된다고 하면서, 임금의 시문을 살필 때에 선왕들의 작품과의 관계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백승호, 「정조의 문학 활동과 그 의미」, 심경호·안장리·김남기·장유승·백승호·이완우·김덕수, 『열성어제와 국왕의 문학』(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 214쪽, 221쪽.

16 안장리, 앞의 논문(2007), 17쪽.

덕궁과 창경궁 권역에 속하는 동궐(東闕)의 후원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아름다운 풍광 열 가지를 선정하여 ‘상림십경(上林十景)’이라 명명하고, 이를 묘사한 시를 남겼다.<sup>17</sup>

숙종이 설정한 십경은 각각 천향각의 꽃구경[天香看花], 어수당의 등불 구경[魚水觀燈], 심추정의 연꽃 구경[深秋賞蓮], 소요정의 샘물 구경[逍遙觀泉], 희우정의 뱃놀이[喜雨泛舟], 청심정의 달구경[清心翫月], 관덕정의 단풍 숲[觀德楓林], 관풍각의 벼 베기[觀豐刈稻], 영화당의 무예 시험[映花萃試], 능허정의 개인 눈[凌虛雪霽]이다.

이 시에서 눈에 띄는 것은 계절의 흐름을 반영하여 각 시를 배치하고 있으며, 계절감을 잘 드러내는 작품이 많다는 점이다. 가장 처음 등장하는 <천향간화><sup>18</sup>에서는 “울긋불긋 꽃이 피어 나를 맞아 웃음 짓고, 꾀꼬리가 잎 너머에서 두어 번 울음 우네[灼灼花開迎我笑 黃鸝隔葉兩三啼].”라고 하여 꽃이 피어나기 시작하는 모습과 꾀꼬리 울음소리를 묘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생동감 있는 봄날의 흥취를 충분히 드러내었다.

가을날 단풍을 읊은 <관덕풍림><sup>19</sup>이나, 겨울날 눈 구경을 묘사한 <능허모설><sup>20</sup>은 제목부터 계절감을 강하게 드러내며, <관덕풍림>에 언급된 서리 내린 늦가을[霜落暮秋]이나 비단 언덕[錦繡堆] 같은 단풍 숲[楓林]은 울긋불긋한

17 숙종의 「상림십경」은 『열성어제』 권9와 『창덕궁지』에 전한다.

18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흰 담장과 붉은 난간이 높고 낮는데 봉미죽이 우뚝 솟아 누각과 나란하네 울긋불긋 꽃이 피어 나를 맞아 웃음 짓고 꾀꼬리가 잎 너머에서 두어 번 울음 우네 [粉牆朱檻有高低 鳳尾亭亭畫閣齊. 灼灼花開迎我笑 黃鸝隔葉兩三啼].”

19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 높고 서리 내려 늦가을이 이르니 눈에 드는 단풍 숲은 비단을 쌓은 듯 일기가 청명하고 큰 흥이 일어나서 거문고와 술을 들고 층층 누대 오르네[天高霜落暮秋來 入眼楓林錦繡堆. 日朗氣清豪興到 携琴與酒上層臺].”

20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밤 내내 바람 불어 백설이 가득하고 눈 밝고 누대 오르니 맑게 갠 경치가 새롭네 상림에서 최고로 빼어난 경치는 수많은 바위와 나무가 모두 은빛인 것이네 [風吹一夜滿瑤塵 踏雪登樓霽景新. 最是上林奇絕處 千巖萬樹摠如銀].”

단풍잎이 가득 쌓인 후원을 상상하게 한다. 또 <능허모설>에서는 “상림에서 최고로 빼어난 경치는, 수많은 바위와 나무가 모두 은빛인 것이네[最是上林奇絕處 千巖萬樹揔如銀].”라고 하여 단 한 수뿐이지만 후원에서 볼 수 있는 눈 내린 겨울 풍경을 독자에게 강렬하게 각인시켰다.

‘경물’을 노래하는 시임에도 곳곳에서 임금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드러난다는 점 또한 특징적이다. <희우범주><sup>21</sup>의 공간적 배경인 희우정은 1690년(숙종 16)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렸을 때 비가 내린 것을 기념하고자 숙종이 바꾸어 붙인 이름이다.<sup>22</sup> 숙종은 하늘의 뜻을 받드는 임금으로서 만백성이 고대하던 비를 기원하는 기우제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낸 곳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이곳을 십경 안에 포함한 것이다. 또한 이 시에서 숙종은 “때가 정말 태평하고 아무 일 없어서, 한가히 낚시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네[正屬時平無一事 閑投竿竹釣魚多].”라고 하여, 태평성대를 다스리는 임금으로서 느끼는 만족감을 드러낸다.

<영화취시><sup>23</sup>는 “문무의 관리 때때로 금장에서 선발하네[文武時時萃禁場].”라는 구절에서 알 수 있듯 영화당 앞 춘당대(春塘臺)에서 이루어지던 과거 시험의 모습을 묘사한 것이다. 과장에 들어서면 임금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선택을 기다리는 입장이 되며, 관리 선발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임금만이 자신의 뜻에 맞는 인재를 선택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더군다나 궁궐의 후원에서 주관하는 과거 시험을 절경의 하나로 꼽았다는 것은, 임금의 권위를 은연중

21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태액지의 잔잔한 물에 용주를 띄우고 낭랑하게 맑은 소리로 채련 곡을 노래하네 때가 정말 태평하고 아무 일 없어서 한가히 낚시하니 물고기가 많이 잡히네 [太液龍舟駕息波 琅然清唱採蓮歌. 正屬時平無一事 閑投竿竹釣魚多].”

22 숙종은 「喜雨亭銘」을 지어 이 일을 기념하기도 했다.

23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하늘에 잇닿은 비단 장막이 영화당을 두르고 성대한 화기가 춘당대에 가득하네 편안하다고 어찌 대비책을 소홀히 하랴 문무의 관리를 때때로 금장에서 선발하네 [繡幕連霄繞玉堂 氤氳和氣滿春塘 居安寧忽綢繆策 文武時時萃禁場].”

에 강조하고자 하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숙종이 '십경'을 설정한 이후, 정조와 순조,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 또한 상림십경이라는 시제를 활용한 작품을 지었다. 순조가 지은 「상림십경」 시는 제목을 통해 알 수 있듯<sup>24</sup> 숙종의 시에 차운하여 지은 것이다. 따라서 시상의 전개 과정이나 묘사하고자 하는 모습, 시구의 운용 등이 숙종의 작품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조는 숙종이 선정한 십경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변화를 꾀했다. 다른 「상림십경」 시에서 추수와 풍년을 기원하는 공간으로 등장하는 관풍정이 정조의 시에서는 경작을 시작하는 봄날의 모습으로 가장 앞에 제시되었다. 시<sup>25</sup>의 내용은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며 궁 안에 조성한 경작지에서 농경을 실천했던 친경례(親耕禮)가 연상되어 숙종의 시처럼 위정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내고 있지만, 순조나 효명세자의 시가 숙종이 설정한 상림십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정조는 숙종이 설정한 상림십경이라는 시제를 계승하면서도 그 내용 면에서 변화를 꾀했다고 볼 수 있다.<sup>26</sup>

같은 맥락에서 정조는 '연꽃'을 볼 수 있는 공간을 숙종이 제시한 심추정 대신 희우정으로[喜雨賞蓮] 바꾸고, 뱃놀이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희우정이 아닌 어수당으로[魚水泛舟] 바꾸는 등 시의 공간적 배경과 볼 수 있는 광경을 바꾸었다. 특히 그는 숙종의 십경 중 '심추정의 연꽃 구경[深秋賞蓮]'을 빼고 그 대신

---

24 시의 제목은 「숙종대왕의 어제 「상림십경」 시의 운자를 삼가 차운하여 짓다[敬次肅宗大王御製上林十景韻]」이다.

25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유구는 날개 퍼덕이고 반구는 울어대니 물 가득한 공전에 비로소 경작을 매기누나 본래부터 제왕들이 농사를 부지런히 힘써 보기당 아래서 가을 풍년을 고하엿었네[乳鳩拂翅斑鳩鳴 水滿公田始課耕. 自是帝王勤稼穡 寶歧堂下告秋成]”.

26 정조가 제시한 열 가지 경물이 숙종이 선정한 십경과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논문은 효명세자의 「상림십경」 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기약하고자 한다.



‘망춘정에서 듣는 피꼬리 소리[望春聞鶯]’를 새로운 십경에 포함시켜<sup>27</sup> 「상림십경」 시를 지은 임금 가운데 유일하게 다른 십경을 제시했다. 그러나 절반가량은 속종의 십경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며, 이에 시상의 전개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여준다.

### III. 국왕 문학 전통의 수용: 효명세자의 「상림십경」

속종을 비롯한 다른 임금들이 10수 연작시 1편씩을 창작한 것에 비해,<sup>28</sup> 효명세자는 총 3편의 「상림십경」 시를 남겼다.<sup>29</sup> 이 시들은 『경헌집』에만 수록되어 있으며, 『담여헌시집』과 『학석집』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세 편의 작품 가운데 가장 처음 등장하는 「상림십경」 시에는 각 시가 마무리될 때마다 작은 글씨로 제목이 부기되어 있다. 뒤의 두 편에는 따로 제목이 없지만, 시에서 활용한 운자가 세 편 모두 속종의 「상림십경」을 따르고 있으므로, 동일한 순서로 배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집에 수록된 순서가 작품의 창작 시기를 감안한 것이라고 본다면, 앞에 수록된 작품에 비해 뒤에 수록된 작품에서 시어의 조응이나 시의 구성 등 문학적 기량이 향상되었을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를 염두에 두고 개별 작

27 망춘정은 현전하지 않는 건물이다. 『궁궐지』에 “존덕당(현 존덕정) 북쪽에 있다.”고 되어 있지만, 1820년 제작된 『동궐도』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다만, 존덕정은 정조가 스스로 지은 ‘萬川明月主人翁’이라는 호에 대한 自序를 짓고, 이것을 새겨 걸은 곳이므로, 정조가 존덕정을 중심으로 하는 경관을 염두에 두고 망춘정을 십경의 하나로 꼽았을 것으로 추정할 여지가 있다.

28 영조는 ‘상림십경’이라는 제목을 붙인 시를 짓지는 않았지만, 속종이 선정한 각 건물에 차운하는 시들을 남김으로서 속종의 취향에 동조했다. 안장리, 앞의 논문(2007), 12쪽.

29 서술의 편의를 위하여 세 편의 작품은 『경헌집』에 실린 순서대로 번호를 부여했다.

품을 살펴보기로 한다.

### 1. 선대 임금의 기존 시상 수용

「상림십경」 중 가장 변화를 주기 어려운 시제는 영화당 앞 춘당대에 모여 시험을 보는 선비들의 모습을 읊은 〈영화체시〉일 것이다. 이 시는 ‘궁궐 안에서 열리는 과거 시험’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반영했기 때문에, 효명세자가 선대 국왕의 시상을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

세 수의 〈영화체시〉에서 모두 장소를 묘사할 때 ‘玉堂’, ‘瑞氣’와 같은 시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공간이 주는 위엄을 강조하기 위한 시적 장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생들이 한창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모습을 묘사하여 현명한 인재가 가득한 태평성세임을 드러내고자 했는데, 이는 앞서 간략히 살펴본 숙종처럼 선택권을 가진 권력자의 입장에서 보는 풍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표현이라 본다.

〈영화체시〉를 제외하고, 효명세자의 「상림십경」 중 선대 임금과 가장 유사한 시상 전개를 보이는 것은 창덕궁 후원의 가장 안쪽 옥류천 권역의 중심에 자리한 소요정<sup>30</sup>과 그 곁에 흐르는 옥류천을 읊은 시<sup>31</sup>이다. 이곳은 진(晉)나라의 왕희지(王羲之, 321~379)의 난정수계(蘭亭修禊)<sup>32</sup>를 본떠 조성되었으

30 소요정은 창덕궁 후원의 가장 안쪽 옥류천 권역의 중심에 자리한 곳으로, 정자 앞 바위에 곡선으로 물길을 내고 물줄기 끝자락에 인공 폭포를 조성했다. 이곳은 조선 인조(재위 1623~1649) 때 1636년(인조 14) 歎逝亭이라는 이름으로 세워졌고, 후에 「장자」 「소요유편」에서 이름을 따와 지금의 이름으로 고쳤다고 한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편),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서울: 돌베개, 2015), 286쪽.

31 다른 임금들은 「소요관천」이라는 제목으로, 정조는 「소요유상」이라는 제목으로 시를 지었다.

32 왕희지는 동진 영화 9년(353) 3월 3일 절강성 소흥현 會稽 山陰의 蘭亭에서 42명의 명사와

며, 이곳의 풍경은 상림십경을 창작한 임금 모두 십경의 하나로 꼽고 있다. ‘소요(逍遙)’라는 정자의 이름에 걸맞게 세속의 근심에서 벗어나 정무로 인한 고단함을 달래는 공간으로서 숙종과 정조가 특히 아꼈던 곳이기도 하다.<sup>33</sup>

[1] 맑은 하늘 아래 수려한 경치 아득하며	天宇清高麗景幽
풍풍 솟는 샘물 천만 갈래로 흘러나가네.	潺潺泉水萬千流
가벼운 술잔 난정(蘭亭) 가에 등등 띄우니	輕觴泛泛蘭亭畔
지금 이 순간의 풍광(風光) 시름 잊기에 좋구나.	是日風光好滌愁

[2] 바윗가 정자에 거문고 소리 아련한데	巖亭鼓瑟有聲悠
돌 사이 나온 폭포수 만 길이나 흐르네.	石出飛泉萬尺流
아름다운 경물이 이뤄지는 곳마다	景物佳成面面處
매년 매해 백성 근심을 풀어주게나.	每年每歲解民愁

[3] 옥 같은 벼랑에 비끼는 붉은 햇빛 길은데	玉岸斜紅日色悠
샘물은 물살 튀기며 어지러이 흘러가네.	如飛泉水亂方流
바람 높은 하늘 끝 한가로운 구름 일어나면	風高天際閒雲起
세상에 난정(蘭亭) 있어 온갖 시름 씻어내네.	世有蘭亭滌百愁

---

더불어 재앙을 쫓는 禳事를 행하고 曲水에 술잔을 띄워 돌려 마시는 詩會를 베풀었다. 그가 지은 「蘭亭記」에 그 내용이 상세히 나와 있다.

- 33 숙종은 물길을 낸 바위에 자신이 지은 시를 새기도록 했으며, 소요정과 인근의 태극정·청의정을 ‘上林三亭’이라 부르며 記를 지었다. 정조는 기문을 지어 1766년(영조 44) 가을장마로 인해 훼손된 소요정을 수리한 사실을 기록하기도 했으며, 난정수계가 이루어진 계축년과 같은 간지인 1793년(정조 17)에는 이를 기념하고자 42명의 신하를 초대하고 연회를 열고, 이 자리에서 지어진 시를 모아 별도의 廣載軸을 만들기도 했다.

소요정과 그 앞에 조성된 옥류천 상류의 바위는 ‘난정수계’라는 상징적인 사건을 투영하여 조성된 곳이다. 때문에 시의 계절적 배경은 왕희지의 시회가 이루어졌던 때인 음력 3월 3일, 즉 봄이 한창일 때로 상정되어 있다. 속종은 “특별히 이 가운데 무한한 흥이 있으니, 곡수에 술잔 띄워 깊은 시름 씻는 것이네[別有此中無限興 傳觴曲水滌幽愁].”라고 하여 물길에 술잔을 띄우는 ‘곡수연’의 모습을 묘사함으로써 난정의 고사를 떠올릴 수 있게 하였고, 순조는 “한가히 소요정 위에 앉아 있으니, 마음 맑고 생각 깨끗하여 시름이 씻겨지 누나[閒坐逍遙亭上看 心清意潔滌憂愁].”라고 하여 ‘시름을 잊을 수 있게 해 주는’ 정자의 이름 뜻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한시에서 특정 고사가 일반적인 수사적 표현의 하나로 굳어지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1]과 [3]의 4구에서 효명세자 역시 이러한 부분들을 자연스럽게 수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의 3·4구에서는 맑은 물이 흘러가 닿는 곳마다 백성의 근심까지 풀어 주기를 바란다면, 시름을 씻어 내던 중에서도 백성을 생각하는 위정자로서의 면모를 드러낸다. 이는 효명세자가 시의 전개 과정에서 나름의 변화를 시도하고자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공간이 주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도가 큰 효과를 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조의 시<sup>34</sup>에서 시도한 변칙과 비교할 때 더 두드러진다. 정조는 2구에서 소요정에서 곡수연이 이루어지는 계절을 초가을로 상정하여 시간적 배경에서 변칙을 주었으며, 3구에서는 『장자』 「추수편」의 우화를 인용하고, 4구에서는 난정을 언급함으로써 정자에 얹힌 여러 고사들이 모두 드러나는 동시에 정자의 상징적 의미까지 모두 담아 내는 모습을 보여준다.

34 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옥같이 맑게 튀어 흐르는 물 굽이굽이 길기도 한데 난간 곁의 산빛은 초가을 서늘함을 보내오네 호랑엔 절로 물고기 구경하는 낙이 있으니 난정에서 술잔 돌리는 풍류 정도 뿐이라[漱玉清流曲曲長 近欄山色納新涼. 濠梁自有觀魚樂 可但蘭亭遞羽觴].”

## 2. 위정자로서의 자세 강화

관풍각에서 바라보는 벼 베는 모습을 읊은 〈관풍예도〉는 뒤로 갈수록 시의 경물을 읊어 내는 수사적 변화뿐만 아니라, 시를 통해 엿볼 수 있는 작가의 생각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1] 서리 내리고 한기 일며 기러기 떼 줄지어 나니	霜來涼動陣鴻濶
절기는 때에 맞추어 만물을 거두어들이는구나.	天氣時時萬物收
구중궁궐 <sup>35</sup> 에서 어찌 백성들의 고통 알 수 있겠나	九重何知民疾苦
상림(上林)에서 농가의 추수 알게 되었다네.	上林始看農家秋

[2] 기러기 떼 하늘 근처 저 멀리로 날아오니	雁陳遠來玉宇近
산마다 단풍 드는 늦가을 추수철을 맞았네	千林楓葉暮秋收
올해는 크게 풍년이 들 조짐 있으니	今年大有萬年兆
팔도의 백성들 길이 이 가을을 즐기리라	八域民生長樂秋

[3] 만 리에 구름 한 점 없고 기러기 떼 아득히 날아가니	萬里無雲雁陳迢
서리 맞은 단풍잎 늦가을에 거두어들이네.	霜紅樹葉暮秋收
빈풍 <sup>36</sup> 에는 백성의 노고 알라는 뜻이 있으니	幽風有意知民苦
만세토록 길이 재미년 가을 <sup>37</sup> 같아라.	萬歲長同癸未秋

35 원문의 '九重'은 겹겹이 문으로 막은 깊은 궁궐, 곧 대궐 안을 이르는 말이다.

36 '幽風'은 『시경』 「국풍」에 있는 篇名이다. 주나라 중궁이 섭정을 그만두고 나이가 어리고 경험에 부족한 성왕을 등극시킨 뒤, 백성들의 농사짓는 어려움을 인식시키기 위하여 지은 것이다.

37 『승정원일기』 중 “올해 농사가 모두 풍년이라 이를 만하다[今年年事 足可曰八路均登].”고 아뢴 기록이 있다[『承政院日記』 순조 23년(1832) 10월 3일; 『日省錄』 순조 23년(1832) 10월 3]

세 수 모두 첫 구절에서 맑은 하늘을 날아가는 기러기를 묘사하여 가을날의 정취를 드러내고 있으며, [2]와 [3]은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단풍’이라는 소재를 통해 계절감을 더욱 심화했다. [1]에서 ‘天氣’, ‘時時’처럼 평이한 시어를 사용하였고, [2]에서는 ‘楓葉’, ‘暮秋’와 같이 직접적으로 계절감이 드러나는 시어를 사용하는데 비해 [3]에서는 독자가 단풍을 연상할 수 있도록 색채어 ‘紅’을 활용하여 뒤로 갈수록 시의 수사법에 신경을 썼음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제재 자체가 위정자의 관점에서 선정된 것이니만큼, 시의 주요 시상이 담긴 3·4구에서는 작가가 지닌 위정자로서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데, 특히 추수를 지켜보며 느끼는 감정의 깊이에서 변화가 감지된다. [1]에서는 궁궐 안에 살기에 백성의 고통을 모두 알 수는 없지만, 이곳에서 벼 베는 모습을 바라보며 어떻게 추수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2]에서는 풍년이 들 조짐이 있으니 팔도의 백성 모두 가을을 즐길 수 있게 되리라 기대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3]은 『시경(詩經)』의 편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백성의 노고를 직접적으로 말하며, 오랫동안 성세가 지속되기를 염원하여 왕세자로서의 품모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낸다.

어수당<sup>38</sup>에서 등불을 구경하는 것을 노래한 〈어수관등〉은 등석(燈夕), 즉 음력 4월 8일<sup>39</sup>의 풍경을 읊은 시다.

---

일]. 이 시에서 언급한 ‘癸末年’이 정확히 언제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1832년이 작자인 효명세자 생존 당시이므로, 해당 기사를 근거로 하여 효명세자가 이후로도 오랫동안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고 이 구절을 해석했다.

38 어수당은 현전하지 않는 건물이다. 『동궐도』에 따르면, 석거문에서 연경당으로 향하는 공터에 남아 있는 작은 연못과 애련지 사이에 있었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편), 앞의 책(2015), 261~262쪽.

39 이날은 관등절이라고도 한다. 홍석모(1781~1857)의 『동국세시기』에 그 풍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1] 물고기 떼 튀어 오르는 저물녘 부용지 <sup>40</sup>	躍躍羣魚芙蕖塘
녹음에 빛이 잇달아 펼쳐져지는구나.	綠陰有色相連張
매번 이날을 만나면 임금의 수레 <sup>41</sup> 이르니	每逢此日金輿度
물속에 해와 달이 같은 하늘에서 빛나네.	水底同天日月光

[2] 푸른 물속 금붕어 석당(石塘)에서 활기찬데	綠水鳧魚鬧石塘
연꽃 정자 근처에서 옥 같은 꼬리 늘어뜨렸네.	蓮亭上有玉尾張
임금 수레 이르는 곳마다 구름빛 감도니	金輿到處盤雲色
오늘 저녁 천 개의 등불 여기저기서 환히 빛나네.	此夕千燈點點光

[3] 수만 꽃술 온갖 향기 옥당(玉堂)에 드리우고	萬蕊千香映玉堂
때맞춰 사월 만났으니 녹음 짙어지겠지.	時逢四月綠陰張
당우 둘러싼 곳마다 점점이 놓인 등불	環堂面面燈千點
밤새도록 온 세상을 환히 비춰 주길.	一宵山河照耀光

사월 초파일이면 사찰을 비롯하여 여염집과 가게, 관청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하는 등을 달고 불을 밝혔다고 하는데, “초파일에는 전례(前例)에 의하여 관등(觀燈)하라고 명하였는데”<sup>42</sup>라고 한 기록을 보면 궁궐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보인다.

[1]에서는 밝게 빛나는 등불과 달이 함께 연못에 비추는 것을 “해와 달이

---

40 원문의 ‘芙蕖塘’은 연을 심은 연못을 이르는데, 『동궐도』에서 어수당에서 보이는 연못은 부용지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하여 번역하였으며, 물고기 떼가 튀어오른다는 시어를 살리고자 시간적 배경을 삽입하여 의역했다.

41 ‘金輿’는 금으로 만든 수레로, 임금이 타는 수레 또는 화려하게 치장한 수레를 이른다.

42 『英祖實錄』 42년(1766) 4월 7일.

같이 빛난다.”라고 표현하여 감수성 풍부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시구는 “달밤의 밝은 빛을 빼앗을까 불만이네[却嫌夜月奪明光].”라고 한 숙종의 〈어수관등〉 구절을 연상되게 한다. [2]에서는 물고기의 활기찬 모습을 묘사하여 시에 생동감을 부여했다. [1]의 3구에서는 임금도 초파일에 등불을 구경하는 풍속을 즐겼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었다면, [2]의 3구에서는 임금이 이르는 자리마다 구름빛이 감돈다는 다소 비현실적인 전개를 보여준다.

[3]의 1구와 2구에서는 ‘옥당’으로 지칭한 어수당에 드리우는 꽃향기(후각)와 더욱 짙어질 것이 기대되는 녹음(시각)을 통해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계절의 모습을 잘 드러낸다. 이어지는 3구에서 곳곳에 등불이 걸린 모습을 묘사하고 마지막 구절에서 이 등불이 “온 세상을 비춰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위정자로서 온 세상을 품고 싶다는 자신의 포부를 투영하고, 또 이것을 시를 통해 숨기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등불이 빛나는 모습 자체에 주목한 [1], [2]와 달라지는 작가의 의식을 드러낸다고 하겠다.

## IV. 효명세자 「상림십경」의 표현상 특징

### 1. 감각어의 활용

심추정<sup>43</sup>에서 감상하는 연꽃을 노래한 〈심추상련〉에서는 감각의 활용을 통한 시상의 전개를 보여준다.

43 심추정은 현전하지 않는 전각이다. 『동궐도』에는 존덕정 아래에 있는 연못의 서쪽에 ㄱ자 형태의 작은 초옥인 심추정이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어 이곳을 심추정으로 추정한다. 현재 이 자리에는 1907년 순종이 덕수궁에서 창덕궁으로 이거할 때 건축된 승재정이 있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편), 앞의 책(2015), 276쪽.



- [1] 높은 하늘 구름 속 옥으로 만든 산봉우리 있고      天半雲中玉作岡  
 물방울의 맑은 광채 영롱하게 서로 비추네.      玲瓏相照水晶光  
 정자 위에서 기대어 앉으매 경치 볼 만하니      斜依亭上景如許  
 수많은 연꽃송이 짙고 풍성한 향기<sup>44</sup> 풍기네.      萬朵芙蓉萬斛香
- [2] 푸른 대나무 무성하게 하늘 가운데 우뚝하고      綠竹猗猗天半岡  
 튀어오른 만 점 물방울 영롱하게 빛나네.      噴波萬點散珠光  
 온화한 바람 산들산들 높은 정자에 불어오매      和風陣陣<sup>45</sup>高亭到  
 빼어난 연꽃 향기 제멋대로 실려오네.      一任荷花送異香
- [3] 녹음 짙은 솔숲 속 푸른 대나무 언덕에      蒼鬱松中綠竹岡  
 잔잔한 물결 일만 점 옥구슬처럼 빛나네.      潺波萬點玉珠光  
 천년만세<sup>46</sup>의 가락 생황으로 연주하자니      千年萬歲笙歌奏  
 온화한 바람 이따금 연꽃향을 보내오네.      陣陣和風送藥香

세 수 모두 경물을 묘사하는 것이 거의 유사하다. 1구와 2구에서는 창덕궁을 둘러싼 바위산과 햇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연못의 물방울을 표현하였다. 또 4구에서 연꽃의 향을 언급했는데, 이는 중국 북송(北宋)대 주돈이(周敦頤; 周濂溪, 1017~1073)의 「애련설(愛蓮說)」에서 연꽃을 ‘화중군자(花中君子)’, 즉

44 원문의 ‘萬斛’은 ‘아주 많은 분량’을 의미한다. ‘곡’은 곡식을 담는 단위 수량이므로, 이를 살려 의역했다.

45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의 원문에는 ‘陳’으로 되어 있으나, 『경현집』 원본 이미지를 확인하여 수정했다.

46 ‘千年萬歲’는 조선시대 宴禮 때 쓰이던 아악곡이다. 세종 때부터 있었던 아악곡이며, 〈계면가락도드리[界面加樂還入]〉 〈양청도드리[兩淸還入]〉 〈우조가락도드리[羽調加樂還入]〉 등 세 곡을 하나로 묶어 부르는 雅名이다.

꽃 중의 군자로 일컬었던 것과 연관이 있다.

[1]과 [2]는 연꽃의 향을 강조하며 끝맺는다. [1]의 3구는 화자의 눈앞 경치를, [2]의 3구는 향기를 떠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는 바람을 제시했다. 두 수 모두 시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훌륭한 연꽃의 향이 가득 전달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힘을 기울였는데, 평이한 표현으로 경물의 묘사에 집중한 [1]에 비해 [2]는 후각과 연계된 감각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그런데 [3]의 3구에서는 청각을 자극하는 생황 가락이 등장시켜 감각을 깨우고, 이어 진한 연꽃향이 간간히 느껴지는 시적 상황을 그려내어 감각의 공유를 통한 시적 효과를 얻었다. 여기에서 제시한 ‘千年萬歲’는 글자 자체만으로 본다면 영원히 시간이 이어지게 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이 시어는 사실 〈천년만세〉 가락으로, 조선시대 연례(宴禮) 때 쓰이던 아악곡이자, 효명세자가 주관한 자경전(慈慶殿) 진작례(進爵禮)에서 연주되었던 곡이다.<sup>47</sup> 이상 세수의 시를 비교해 보면, 직관적으로 연상되는 감각이 연계되도록 했던 시의 구성이 섬세한 고민을 통해 직접적으로 강조하지 않았지만 음미할 수 있는 구성으로 정제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청심정<sup>48</sup>에서 구경하는 달을 노래한 〈청심완월〉 역시 효명세자의 섬세한 감수성을 잘 드러낸다.

[1] 맑디 맑은 하늘에 점차 밝아오는 빛<sup>49</sup>

清清玉宇露光晞

주렴 걷으니 책상에 밝은 달 광채가 나네.

簾捲書床明月輝

47 『純祖實錄』 27년(1827) 9월 10일.

48 청심정은 존덕정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숙종이 1688년(숙종 14) 옛 천수정 자리에 세웠다. 정면 앞에 바위를 파서 만든 네모난 연못 빙옥지가 있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편), 앞의 책(2015), 277쪽.

49 원문의 ‘晞’는 ‘밝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특히 점점 밝아지는 모습을 내포하는 말이다.

금슬(琴瑟) 가락 난간 밖에서 들려오는 듯	琴瑟歌聲在檻外
이 정자의 이 밤이라 또한 잠들기 어렵구나.	此亭此夜也眠遲

[2] 하늘가 서늘한 기운에 맑은 이슬 마르고	天宇涼生白露晞
옥토끼 <sup>50</sup> 는 구름 겹쳐 광채가 생동하네.	披雲玉兔 <sup>51</sup> 動光輝
한밤중 되어 온 숲 나무에 바람 일어나니	風生萬樹到夜半
이곳에 거문고 없어 학 울음도 더디려나.	此地無琴鶴唳遲

[3] 그림 같은 누각엔 긴긴밤 흰 이슬 영롱하고	畫閣夜長玉露晞
천 년토록 적벽에는 달빛 환하게 빛났거늘	千年赤壁月生輝
하늘가에 학 울음소리 바람도 함께 지나니	天邊鶴唳風同到
열은 단장 한 항아(姮娥) <sup>52</sup> 느릿느릿 그림자 희롱하네	淡粧姮娥弄影遲

사방이 뚫린 작은 정자에 앉아 밝은 달을 바라보며 느끼는 흥취를 노래한 이 작품은 시의 중심 재제인 달을 표현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점이 흥미롭다. [1]에서는 달이 점차 떠오르는 모습을 표현하면서 ‘月’이라는 시어를 직접 제시했으며, 이 밤 이곳의 풍광이 잠들기 어렵게 한다는 설렘을 드러낸다. [2]에서는 서늘함이 느껴지는 밤에 구름이 겹치면서 환히 빛나는 달이 떠오른 모습을 묘사했는데, 여기에서는 달을 ‘옥토끼[玉兔]’로 비유했다. 4구에서 ‘학의 울음소리’가 등장하는데, 이는 바람 소리를 느린 학 울음에 비유한 것이다.

50 원문의 ‘玉兔’는 달의 이칭이다.

51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에서 원문은 ‘兔’로 되어 있었으나, 『경현집』 이미지를 참고하여 ‘兔’로 수정했다.

52 원문의 ‘姮娥’는 달 속에 있다는 전설 속의 신녀를 이르며, 특히 보름달을 상징한다.

[3]은 가장 복잡한 구성을 보여주는데, 우선 시의 1구부터 3구까지 하늘에 뜬 달에 시선이 닿기 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감각이 동원된다. 옥처럼 맑고 흰 이슬이 영롱하게 빛나는 깊은 밤에 하늘에서 학 울음소리와 같은 바람이 함께 지나가면, 마침내 시의 4구에서 ‘열게 단장한[淡粧] 향아’가 등장한다. 시에서는 아주 천천히 그림자를 희롱한다고 표현하여 말간 달 그림자가 하늘을 가득 채우는 순간을 포착하여 감각적으로 표현했다. 특히 운자인 ‘遲’가 화자가 달을 완상하는 그 순간 느끼는 시간 감각을 반영하게 되면서 이 시가 갖는 흥취가 극대화되었다.

## 2. 시어 운용의 특징

효명세자가 「상림십경」 시에서 주로 활용하는 시어의 수사 방식을 보면, 몇 가지 자주 쓰는 표현이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짚어 볼 지점은 앞에 수록된 작품에서 보이는 투박함 내지는 미숙함이 뒤로 갈수록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한시 절구는 글자 수의 제약이 크기 때문에 시어를 활용하는 데에 더욱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시어가 활용되는 빈도나 양상의 변화를 통해서도 작가의 시적 성취를 엿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효명세자가 창작한 「상림십경」 세 편에서 사용된 시어 가운데 고사를 인용한 경우를 제외하고, 색채어 사용, 첩어 사용, 대명사 사용 등의 활용 양상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첩어와 대명사의 사용 빈도가 줄어든다는 점이다. 효명세자가 시에서 첩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①에서 8번 ②에서 5번 ③에서 5번이다. 또 此·是·今처럼 현재성을 강조하는 대명사가 등장하는 빈도 역시 ①에서 5번 ②에서 4번 ③에서 단 한 번도 없어 점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대명사나 시어의 중첩은 의미를 강조함으로써 시의 분위기를 효과적으

표1-효명세자 창작 「상림십경」 시어의 활용 양상<sup>53</sup>

시제	「상림십경」 ①	「상림십경」 ②	「상림십경」 ③
〈天香看花〉	(색)紫紅花, 綠竹林 (첩)雙雙	(색)紅花綠葉 (첩)色色	(색)紅花, 綠葉
〈魚水觀燈〉	(색)綠陰; (첩)躍躍 (대)此日	(색)綠水; (대)此夕 (첩)點點	(색)綠陰 (첩)面面
〈深秋賞蓮〉		(색)綠竹 (첩)猗猗, 陣陣	(색)綠竹 (첩)陳陳
〈逍遙觀泉〉	(첩)潺潺, 泛泛 (대)是日	(첩)面面	(색)紅日
〈喜雨泛舟〉	(색)碧落; (첩)時時	(색)綠波; (대)此地	(색)綠潭, 紅舟, 青天
〈清心翫月〉	(첩)清清 (대)此亭, 此夜	(색)白露 (대)此地	
〈觀德楓林〉	(색)五色	(색)白玉臺	(색)斑紅樹葉; (첩)高高
〈觀豐刈稻〉	(첩)時時	(대)今年	(색)霜紅樹葉
〈映花萃試〉	(색)靑衿翰, 墨塲 (대)是日	(색)靑衿; (첩)氤氳 (대)此, 是日	
〈凌虛雪霽〉	(첩)枝枝	(색)白雪, 白銀	(색)白銀 (첩)皎皎, 面面

로 살릴 수 있는 좋은 장치임이 분명하며, 그렇기에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다. 그렇지만 대명사의 활용이 적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시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다른 시적 장치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이 외에 궁궐 전각의 모습을 형용할 때 玉·祥·瑞와 같은 단어를 붙여서 수식하는 경우는 ①에서 거의 등장하지 않는 것에 비해 ③에서 〈관풍예도〉 한 수를 제외하고 모두 확인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이는 시의 공간적 배경이 되

53 (색)은 색채어를, (첩)은 첩어를, (대)는 대명사를 의미한다.

는 궁궐의 여러 전각들이 더욱 화려하면서도 신비하게 느껴지게 하고 싶은 작가의 의식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또, 계절감을 드러내야 하는 시에서 색채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역시 특징이다.

다만 이러한 특징은 동일한 시제를 활용하는 세 편의 시가 갖는 한계로도 볼 수 있다. 동일한 운자를 배치한데다가 문체의 특성상 사용할 수 있는 글자수에 제약이 있다 보니 해당 시제의 느낌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시어를 배치하는데, 이 과정에서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느낌의 시어를 쓰게 되고, 그러다 보니 특정 표현이 중복되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시어의 활용 양상에서 드러나는 이러한 특징은 동일한 주제의 작품을 꾸준히 창작해 보면서 작시의 기교를 다듬는 연습을 했을 것이라는 유추를 가능하게 한다. 이와 동시에, 순조의 「상림십경」처럼 제목을 통해 직접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그가 학시(學詩) 과정에서 숙종과 정조의 「상림십경」을 참고하면서 왕실 구성원만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궁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작시 활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소재와 제목을 가진 시를 운자까지 동일하게 두고 여러 편 짓는 것은 비슷한 표현이 중복될 가능성이 높기에 작가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효명세자의 작품에서 이러한 예시가 확인된다는 것은, 먼저 그가 선대로부터 이어지는 문학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것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 V. 맺음말

---

「상림십경」 시는 숙종 대부터 시작된 창덕궁 후원의 누정 경영을 통한 신하들과의 교유 정치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

는 선대 임금의 창작한 「상림십경」을 간략히 정리하고, 효명세자의 「상림십경」을 대상으로 시어의 활용 양상을 분석하여 효명세자가 지은 「상림십경」의 문학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했다.

숙종의 ‘십경시’는 계절의 흐름을 반영하여 각 시를 배치하고 있다는 점, 경물을 노래하는 시임에도 곳곳에서 임금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드러난다는 점 등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순조는 숙종의 시에 차운한 것으로 시상의 전개 과정이나 시구의 운용 등이 거의 유사한 편인데, 정조는 숙종이 선정한 십경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변화를 꾀했다.

효명세자는 총 3편의 「상림십경」 시를 남겼다. 이 작품은 『경헌집』에 수록되어 전하며, 선대 왕들의 「상림십경」 시가 가진 특징들이 잘 반영되어 있다. 선대 임금이 창작한 「상림십경」 시의 시상 전개와 유사한 지점이 많은 작품도 있었지만,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다양한 감각어를 점차 적극적으로 활용하거나 위정자로서의 면모를 점차 강하게 드러내는 작품도 확인할 수 있었다. 문집에 수록된 순서가 작품의 창작 시기를 감안한 것이라고 했을 때, 이는 그의 문학적 기량이 점차 향상되었음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고 하겠다.

효명세자가 「상림십경」 시에서 주로 활용하는 시어의 수사 방식을 보면 몇 가지 자주 쓰는 표현이 확인되는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지점은 앞에 수록된 작품에서 보이는 투박함 내지는 미숙함이 뒤로 갈수록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효명세자는 학시(學詩) 과정에서 왕실 구성원만이 직접 접할 수 있는 궁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작시 활동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효명세자는 1827년 2월 부왕 순조의 건강 악화를 이유로 대리청정(代理聽政)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애련정 남쪽에 있던 작은 건물을 수리하여 의두합(倚斗閣)이라 명명하고 자신의 독서처로 삼았다. 궁궐의 수많은 전각

중 유일하게 북향(北向)인 의두합은 단청도 칠하지 않은 소박한 건물이지만, 역대 임금들의 작품에서도, 후대 임금들도 거의 언급하지 않은 말 그대로 효명세자만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상림십경」이 왕실의 구성원으로서 특별히 누릴 수 있는 궁궐 안 공간을 배경으로 두고 이루어졌던 선대 임금들의 창작 전통을 수용한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적 독립을 준비하던 자신만의 공간인 의두합에서 ‘십경’을 설정한다는 것은 새로운 의경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한 작품이다. 「의두합십경」 및 의두합과 연관이 있는 작품들에 대한 분석은 후속 연구를 기약한다.<sup>54</sup>

---

54 『경현집』 수록 작품의 번역 과정에 귀한 시간을 내어 함께해 주신 김지현 박사님, 임연지 박사님과 이지은 학우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 참고문헌

### 1. 1차 자료

『敬軒集』.  
『淡如軒詩集』.  
『鶴石集』.  
『列聖御製』.  
『弘齋全書』.  
『昌德宮志』.  
『英祖實錄』.  
『純祖實錄』.

### 2. 논저

김남기, 「국왕의 시문과 생활: 『列聖御製』를 중심으로」, 『열상고전연구』 28, 2008.  
박순, 「『창덕궁지』를 통해 본 창덕궁 관련 한문학 유산 연구: 어제 시문을 중심으로」, 『인문논총』 60, 2023.  
박나연, 「純祖代 孝明世子 관련 王室儀禮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1.  
백승호, 「정조의 문학 활동과 그 의미」, 심경호·안장리·김남기·장유승·백승호·이완우·김덕수, 『열성어제와 국왕의 문학』,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출판부, 202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편), 『궁궐지 1: 경복궁·창덕궁』, 서울: 서울학연구소, 1994.  
심재우·임민혁·이순구·한형주·박용만·이왕무·신명호, 『조선의 세자로 살아가기』, 파주: 돌베개, 2013.  
안장리, 「조선시대 왕의 八景 향유 양상」, 『동양학』 42, 2007.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 파주: 돌베개, 2015.  
이종목, 「효명세자의 저술과 문학」, 『한국한시연구』 10, 2002.

### 3. 기타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 DB(<https://db.itkc.or.kr>).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 장서각(<https://jsg.aks.ac.kr>).

## 국문초록

「상림십경」시는 숙종 대부터 시작된 창덕궁 후원의 누정 경영을 통한 신하들과의 교유 정치를 계승하는 측면에서 살펴볼 만한 작품이다. 이 글에서는 선대 임금인 임금이 창작한 「상림십경」을 간략히 개괄하고, 효명세자의 「상림십경」을 대상으로 내용 및 표현상의 특징을 분석하여 그가 지은 「상림십경」의 문학적 특징을 알아보고자 했다.

숙종의 「상림십경」은 계절의 흐름을 반영하여 시를 배치했으며, 경물을 노래하는 시임에도 곳곳에서 임금이라는 특수한 신분이 드러난다는 점이 특징이다. 정조와 순조, 순조의 아들 효명세자도 「상림십경」시를 지었다. 순조의 시는 숙종의 시에 차운한 것이기에 표현의 변화가 크지 않다. 정조는 숙종의 십경을 그대로 따르지 않고 변화를 꾀했다.

효명세자는 총 3편의 「상림십경」시를 남겼다. 시의 구성 및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선대 임금들의 「상림십경」시와 유사한 시상 전개를 보인다. 특히 동일한 제목의 작품임에도 위정자로서의 면모가 점차 강하게 표출되는 양상을 통해 그의 작가 의식이 강화되는 모습이 확인된다.

효명세자의 「상림십경」시에서는 감각어의 활용을 통한 수식이 돋보이며, 앞에 수록된 작품에서 보이는 미숙함이 뒤로 갈수록 정제된 모습을 보인다. 이는 그의 문학적 기량이 향상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효명세자의 작품은 그가 왕실의 구성원이자 차기 임금으로서 궁궐이라는 특별한 공간을 대상으로 하는 국왕의 작시 활동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투고일 2024. 6. 12.

심사일 2024. 7. 24.

게재 확정일 2024. 8. 19.

주제어(keywords) 효명세자(Crown Prince Hyomyeong), 『경헌집』(敬軒集, *Gyeongheonjip*), 창덕궁 후원(Changdeokgung's Rear Garden), 「상림십경」(上林十景, the poem Sangrim Shipgyeong), 국왕 문학(king's literature)

## Abstract

### Consideration of the Poem Sangrim Shipgyeong by Crown Prince

Hyomyeong

**Ahn, Iseul**

The poem “Sangrim Shipgyeong” (上林十景) is a notable work from the era of King Sukjong (肅宗) that exemplifies the continuation of political interactions with subject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pavilions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This study briefly outlines the “Sangrim Shipgyeong” created by the former kings,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content and expression in Hyomyeong’s “Sangrim Shipgyeong,” and explores the literary characteristics of his work.

King Sukjong’s “Sangrim Shipgyeong” is characterized by its arrangement reflecting the flow of seasons, and despite being a poem celebrating ‘scenic objects,’ it reveals the unique status of the king throughout the text. Similarly, King Jeongjo (正祖), King Sunjo (純祖), and Crown Prince Hyomyeong also composed “Sangrim Shipgyeong” poems. The poems of Sunjo, derived from the poems of Sukjong, show little variation in expression, whereas Jeongjo sought change, not strictly following the ten sceneries selected by Sukjong.

Crown Prince Hyomyeong left a legacy of three poems. When examining the composition and content of the poems, they exhibit a similar poetic development to the poems of the previous kings. In particular, the strengthening of his authorial consciousness can be seen through the increasingly strong representation of the ruler in works of the same title.

Hyomyeong’s “Sangrim Shipgyeong” poems are characterized by the use of sensory language. Additionally, the immaturity exhibited in the earlier works improves as the poem progresses, demonstrating the development of Hyomyeong’s literary skills. As a member of the royal family and the next king, Hyomyeong’s work shows that he was faithfully continuing the royal tradition of writing about the special spaces of the palace.